

弘報活動強化해야



정 훈 목
현대건설(주) 회장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의 확충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40~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대용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지 및 청정에너지로서 국가에너지정책상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필연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여건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호의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안전성 문제만 하더라도 발전소에서 나오는 실제 방사선량은 자연상태에서 받는 240밀리렘보다 훨씬 적은 연간 1밀리렘 미만으로 거의 무시할 만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를 마치 원자폭탄과 동일개념으로 파악하여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극단적인 지역이 기주의는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용 부지선정마저도 반대하고 있어 전반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계획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너지정책 및 필요에 의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관련시설 설치는 계속 추진되어야 하므로 국민들의 이해부족 및 비공개행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 및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국민적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의 일환으로 첫째,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원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 원자폭탄과 다른 점, 필요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고 보다 알기 쉬운 내용을 삽입하여 원자력을 쉽게 이해시켜 원자력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거부감 그리고 맹목적인 원전 배척현상에서 벗어나게끔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차세대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자력분야에 종사하는 기관 및 사람들이 출신수범하여 홍보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며, TV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로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호응을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한 공개정책 추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모든 기술적인 향상 및 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개발은 정부 주도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기술자립체제가 형성되어 설계, 제작, 운전, 보수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들이 설립운영되어 현재 분야별로 50~80% 정도의 기술자립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시공분야에서는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건설공사에 외국업체의 하도급으로 참여하면서 건설기술의 기초단계를 배우게 되었으며, 그 이후 연이은 영광 1, 2호기까지 7기의 원전건설을 통하여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기술을 축적하여 그 자립정도는 95% 이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시공중인 영광 3, 4호기 건설을 통하여 시공기술면과 시공관리면에서 완전 100% 자립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안전시공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기술자립을 이룬 부분을 심분 활용하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